



# 음주교통사고 “약발 안 먹히네”

### 지난해 대비 27.9% 증가... 총 397명 사상자 발생 경찰, 잇단 도내 교통사망사고에 10월말까지 단속

이달 들어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상습 음주운전 구간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상습 음주운전 구간 등을 중심으로 이달 21일부터 10월 31일(6주간)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 이륜차 안전도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범죄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14일 기준 도내 교통사망사고는 총 45건인 가운데 이달에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 53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인근 밭에서 80대 마을주민이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4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5·16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0대 경찰 간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노형동 1100도로 신비의도로 인근에선 3.5t 고소작업차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육거리 북측 도로에서 차에 치인 중국인 보행자가 엿새만에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대비 56건(27.9%) 늘었다. 올 들어 257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97명(부상 395명·사망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같은 기간 201건의 음

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336명(부상 333명·사망 3명)이 다치거나 숨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역별 단속 전담팀을 꾸리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취약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내권에서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안전도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신호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된다. 시외권에서는 어르신 이륜차 안전 장구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과속 단속 등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주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고 인도 주행 금지, 교통 신호 준수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르신들은 도로를 건널 때, 특히 야간에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뒤 횡단보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a@ihalla.com



추석 앞두고 막바지 벌초 추석을 앞두고 20일 제주시 공성공원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이 벌초를 하고 있다. 이상극기자

# 실시간 원격수업 늘린다?… 현실은

### 제주도내 초·중·고 201곳 중 7.49%만 전면 쌍방향 수업 교육청, 확대시행 입장에도 일부에선 “강요 안돼” 반발

제주도교육청이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낮은 수업 시행률’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전면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10%도 안되기 때문이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201개교 가운데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화상수업(실시간 쌍방향)을 진행하는 학교는 14개교(7.49%)에 불과했다. 이어 녹화한 강의를 학생이 듣고 댓글을 달면 교사

가 조인해주는 방식인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13개교(6.95%)였다.

가장 많이 시행된 수업은 쌍방향과 콘텐츠 활용수업을 혼합한 방식으로 115개교(61.5%)에 달했다. 또 콘텐츠 활용과 과제를 내주면 학생이 혼자 학습하는 ‘과제수행 중심 수업’이 혼합된 방식은 59개교(31.55%)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대안을 원격수업으로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공교육이 끼어드는 꼴”이라며 “교사들에게 마냥 원격수업 확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자가 아닌 ‘교육 코디네이터’가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A(43·여)씨는 “콘텐츠 활용이나 과제수행 위주로 원격수업이 시행됐을 때는 아이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나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되면 조금이나마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17일 도교육청은 원격수업이 학생 환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원격수업 질 제고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담임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쌍방향 원격수업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콘텐츠 활용수업도 담임교사가 실시간 채팅에 나서도록 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단속 피해 폐수·가축분뇨 ‘활활’... 배출기준 어긴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제주시, 97곳 중 19곳 고발

제주시가 올해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94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배출기준을 어긴 97개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19개소를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위반(미신고 세차장 운영) 4개소 ▷사업장폐기물 위반(폐기물 부적정 보

관) 6개소 ▷가축분뇨위반(액비살포 기준 위반 등) 9개소로, 액비화기준에 부적합한 액비를 살포해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약취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감시활동을 벌인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1개소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적정작성 여부 ▷약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 관리·감독이 소홀한 취약시설을 노린 오염물질 배출 행위 차단을 위해 명절 연휴기간에도 읍면동과 시 당직실과 연계한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728-3131-3)을 운영해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감시 활동을 홍보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문미숙기자

# “아베 나와”日영사관 난동 30대 남성에 징역 2년형

주한제주일본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일본영사관저 앞에서 “아베 나오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영사관 관저를 향해 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저지하는 영사관저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7일에는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에게 “돈 받고 시위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9월 자신을 112에 신고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 택배파업 철회... “인력 총원 약속 지켜야”

### 노조 분류작업 거부 않기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분류작업 거부를 선언했던 택배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정부의 인력 총원 등 대책이 마련되자 분류작업 거부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석 연휴에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관련 대

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도 분류작업 거부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분류작업 전면 거부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예정돼 있던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을 발송하고, 23일부터 분류작업 인력 투입에 따라 출근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정부와 택배업계가 발표한대로 인력 투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택배업계가 인력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훈스당밀**  
과실의 색상을 진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립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분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닝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 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 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고택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